

## CURRICULUM VITAE

### 유미란



#### 약력

- 現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학부 방송연예계열 조교수
- 現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발성 연구회 부이사장
- 저서 ‘문화 콘텐츠 연구의 현장/푸른사상’
- 논문 ‘한국 대중가요 작사·작곡을 위한 노랫말의 음운론적 특징 연구 : 청자의 노래가사 경계표지 인식을 위주로’ 국제언어인문학회 2014

A Study on Phonological Features of Lyrics for Korean Popular Song Writing

- 데뷔 2003년 ‘유경(유미란)’ 1집 ‘01+ Most & More’
- 現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보컬트레이너
- 前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앙상블트레이너
- SBS ‘기적의 하모니’ 합창지도
- SBS ‘송포유’ 합창지도
- KBS ‘이승철과 탈북청년 42인의 하모니 그날에’ 합창지도
- KBS ‘나는 대한민국’ 김연아 합창단 합창지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재학중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실용음악전공/음악석사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전공/음악학사
  
- 前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PostModern음악학과 외래교수
- 前 청강문화 산업대학교 뮤지컬과 외래교수
- 前 수원과학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前 대전 중부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 前 백제예술대학교 퓨전공연예술과 외래교수

# Voice of the Director

## (실용음악 가창 호흡조절: 실용음악 가수의 목소리 손상을 줄이기 위한 호흡조절 방법)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계열

유미란

### I. 시작하는 말

실용음악 가수는 노래를 할 때 마이크(microphone)를 사용한다. 따라서 공명에너지가 크지 않은 소리도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소리신호로 변화되어 수천 명 이상 수용될 수 있는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가능할 뿐 아니라 아주 작고 섬세한 감정표현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실용음악 가창도 안정적인고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서양 클래식 발성과 기초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성대를 깨끗하게 붙여서 소리 내지 않고 약간 벌린 상태로 기식음(breathy voice)을 소리 내는 방법은 클래식 발성에서는 피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 발성은 슬픈 감정이나 회상, 독백 등의 가사 내용과 잘 어울리고 청자를 감성적으로 자극시키기에 좋아서 대중가요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오랜 시간 소리를 내다보면 음정이 불안해지고 호흡 조절이 어려워지며, 음이탈 현상과 같이 목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발생시 성대접촉이 충분하지 않아 성문 사이로 필요 이상의 공기가 새어나가 기식음을 초래하는 것을 ‘과소기능발성’이라고 하는데 정상보다 성문압력이 커지고 성대 사이를 지나가는 공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시 호흡이 모자라게 된다.<sup>4)</sup>

이번 강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용음악 가수의 목소리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호흡 조절 방법에 대해 다루겠다.

### II. 실용음악 가수의 목소리 손상을 줄이기 위한 호흡조절 방법

아직 자신의 노래를 완전히 조절하지 못하는 가수들은 ‘호흡을 쉬는 구간’을 연출하지 못하고 ‘호흡이 손실되는 구간’을 만드는 실수를 한다. 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기식음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식음이 필요한 구간에서만 선택적으

로 사용되 원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든 다시 성대 접촉을 완전한 상태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발생되는 동안 바른 자세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가슴을 꺼트리지 않으며 상복부와 배꼽 부위를 빠르게 수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소리가 종료되는 지점에서 성대는 벌리고 복부는 수축하면서 호흡을 뱉어버리듯이 끝내면 안정적인 호흡조절이 어렵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위한 호흡에 긴장감을 주기 쉽다. 따라서 호흡조절을 위해 소리의 시작-지속-끝나는 부분과 복부벽 근육의 움직임이 잘 맞도록 조절해야 한다.

#### 1. 호흡이 손실되는 구간 찾기

##### 1) 공명균형 Resonance balancing

‘호흡을 쉬는 구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른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음정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호흡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도 모른 채 호흡이 딸리는 문제를 호소하는 가수의 경우 음정이 상승할 때나 하행할 때 습관적으로 성대를 벌려 호흡을 손실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일 모음으로 131, 12321, 13531 등의 단순한 형태의 스케일을 하나 설정하고 인접 조성으로 반음씩 상승하며 연습하다 보면 본인의 발생 습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음정이 오르내리며 변화할 때 후두의 위치는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

##### 2) 모음추적 Vowel tracking

모음추적은 모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 성도를 조금씩 조절하여 적절한 성도의 크기와 모양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이다. 노래에서는 모음정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성문 상부의 공명관이 후두에서 만들어진 모음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이 발생은 훈련에 의해 습득이 가능하다. 거울을 보며 입모양을 관찰하면서 [i-e-a-e-i]와 같은 전설모음에서 후설모음까지(또는 설측모음에서 원순모음까지), 그리고 반대로 [a-e-i-e-a] 발음을 진행한다. 불과 턱을 고정시키지 말고 입과 입술 및 턱이 정상적인

유연성을 갖도록 하되 소리가 잘 연결되도록, 음정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그 다음 설측모음과 원순모음의 배합인 [e-o] [o-e]가 사용되어야 한다. 모음과 음정 패턴이 변할 때, 모음의 정확성과 공명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sup>

### 3) 기류가 많이 생성되는 자음 주의하기

자음을 분류하는 체계 중에 유기음과 무기음이 있다. 파열음은 파열 직후 곧 그 뒤에 오는 모음의 성대 진동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음을 무기음unaspirated이라고 한다. 그러나 파열부터 약간 늦게 성대 진동이 시작되면 파열 뒤의 호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h]시 또는 이에 가까운 음이 들리게 되는데 이것을 기aspiration라 하고 기를 수반한 음을 유기음aspirated이라 한다. 거센소리, 격음이라고도 하는 유기음에는 ㅍ, ㅊ, ㅌ, ㅋ 등이 해당된다.<sup>1)</sup> 쉽게 이해하기 위해 손 등을 입 앞에 대고 [가-까-카]를 순서대로 발음하면 손 등에 느껴지는 기류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ㄱ’은 무기음에, ‘ㅋ’은 유기음에 해당한다. ‘ㄱ’은 무기음에 해당하지만 노래할 때 악상의 영향을 받으면 쉽게 기류가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 외의 자음도 명백한 유기음을 제외하고는 강하게 불리지기 쉬우며 이는 뒤따르는 모음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 호흡의 손실을 야기한다.

## 2. 음량 조절하기

고른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음량을 조절해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변화를 주며 소리를 조절하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호흡을 아끼면서 기식음을 표현하는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식음 소리 시작을 가벼운 성문접촉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성문이 가볍게 닫혀 잘 생성된 소리를 작게 낼 수 있다면 효과는 비슷하게 내면서 호흡과 에너지는 절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메사 디 보체 *messa di voce* 연습방법이 좋다. 메사 디 보체는 호흡 조절과 적절한 발성 조절을 결합시키는 기술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습이다. 만약 호흡 조절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연습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메사 디 보체 연습은 중저음에서 단일 음정을 사용하여 다음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한다. 첫째, *p*에서 *f*까지 점점 커지게, 둘째, 그 다음에 조용하게 들숨을 마시고, 셋째, *f*에서 *p*까지 점점 여리게 한다. 이것을 반복하면 호흡을 마시기 위한 중단이 없어지고 완전한 메사 디 보체가 틀에 잡히게 된다. 중저음이 가능해지면 높은 음정을 사용해서 연습하고, 나중에는 단일 음정이 아니라 전체 프레이즈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sup>3)</sup>

## 3. 성대접촉 변화하기

음량 조절이 가능해지면 같은 음정으로 길게 소리 내면서

성대 접촉율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보내는 호흡량을 변화해서 소리의 강도와 명암을 조절할 수 있다. 기식음 표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유롭게 다시 성대가 잘 접촉된 상태의 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기식음을 소리 낼 때 흉골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슴이 꺼지는 모양이 생기기 쉬우므로, 역시 이 연습을 할 때도 소리를 내는 동안 바른 자세와 가슴의 위치, 복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연습 방법은 메사 디 보체와 비슷하게 단일 음정을 사용해서 중저음에서 시작하여 성대 접촉율을 변화시키면서 강도를 조절한다. 단, 음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성대접촉에 변화를 주며 소리를 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III. 마치는 말

실용음악 가창도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위해서 서양 클래식 발성과 기초를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실용음악 가창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소리의 특징들은 실용음악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비록 그런 방법들이 가수의 목을 다치게 하고 가수로서 생명력이 단축되는 문제까지 만든다고 해도 실용음악 가수들은 본인만의 독특한 발성법으로 누구와도 구별되는 단 하나뿐인 목소리의 가수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용음악 가수와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발성교정도, 음성치료의 효과도 순간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가수라면 목이 아프지 않으면서 오래도록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가수로 활동하기를 소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발성을 기초로 하되 특징적인 방법들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노래에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개성 있는 발성과 정석적인 발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실용음악 가수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이다.

## References

1.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2. Richrd Miller. Training Soprano V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0.
3. Richrd Miller. 황화자 역. 발성문제의 길잡이.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4. Stemple JC. Voice therapy: clinical studies, 1st ed. Missouri: Mosby Year Book, 1993.